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만든 나의 건강이야기

- 2026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이용 후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7.7.) -
-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통한 일상 회복 경험 공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은 「202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장애인 당사자 이용 후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 회복 사례를 담은 총 12편의 우수 수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다양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체감 효과와 개선 요구를 확인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은 경험,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이 개선된 사례 등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장애인 이용 후기 총 33편이 접수되었으며, 선정된 12편의 수상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최우수상 4점, 우수상 4점)과 국립재활원 원장상(장려상 4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최우수상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생애 첫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야기,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안전하게 출산해 가족의 행복을 맞이한 경험,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통해 오랫동안 미뤘던 치과 치료를 받고 삶의 자신감을 되찾은 사례, ▲건강검진과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지속적인 관리로 일상을 회복해 나간 이야기가 선정되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서비스가 건강 증진뿐 아니라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생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장애친화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필요한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하였다.

- <붙임> 1. 2026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이용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목록
2. 수기 공모전 수상작 주요내용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임현규 (044-202-3190)
		담당자	사무관	강혜경 (044-202-3194)
<공동 주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책임자	주무관	강승현 (044-202-3195)
			과 장	이보람 (02-901-1302)
		담당자	연구사	이금주 (02-901-1306)



상명	상격	수상작 제목	수상자	서비스 구분
최우수상 (4)	보건복지부 장관상	생애 첫 건강검진	이은정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도 엄마가 될 수 있다!	이시현	장애문화산부인과
		봄을 품은 붉은 꽃눈	박연섭	장애인 치과주치의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한 한마디	이재성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치과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
우수상 (4)	보건복지부 장관상	방문진료에 대하여 감사	김옥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야 삶도 굴러갑니다.	양일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고단한 삶에 봄꽃과 함께 찾아온 희망의 파트너 (사지마비 장애인도 치료받을 권리를 누리자!)	조 현	장애인 건강주치의
		우리 가족의 삶을 일으켜 세운 따뜻한 처방전 '장애인건강주치'	김예술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려상 (4)	국립재활원 원장상	"혼자서는 어려웠던 구강관리, 함께라서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가 바꾼 나의 일상-	오세웅	장애인 치과주치의
		목숨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 아내를 돌볼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이복남	장애인 건강주치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 나의 언어로 만난 건 건강검진	서도원	장애인 건강검진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게 한 문자 한 통, 그 세심한 온기가 일깨운 나의 건강권	노예린	장애문화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

붙임 2

수기 공모전 수상작 주요 내용(요약)

상명	수상자 (서비스)	수기 주요내용(일부 발췌내용 포함)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이은정 (장애인 건강검진)	[제목] 생애 첫 건강검진 [요약]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살며 병원 방문과 검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건강검진에 도전한 경험을 생생하게 담아냈고, 아울러 장애인 검진 시 의료진에게 요청할 사항과 장거리 이동 지원 등 필요한 물리적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나누어 표현함 (일부발췌내용) 이번 건강검진은 제 건강관리에 있어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의 현재 건강상태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장애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검진을 망설이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시현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목] 장애인도 엄마가 될 수 있다! [요약]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및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었던 경험, 출산후 건강 관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함. (일부발췌내용) 이 모든 것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삶의 변화인 것 같아요. 장애인이 된 후 제 인생은 조금은 흑백 세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제 흑백 세상에 매일매일 알록달록 색을 칠해주는 저희 아이를 만났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 000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장애인이 된 후 사회가 내미는 손길이 필요한 때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순간들이 종종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 기관이 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박연섭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목] 봄을 품은 붉은 꽃눈(부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요약] 가족이 함께 장애를 이겨내는 여정과 그 안에서 경험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의 가치를 진솔하게 표현함 (일부발췌내용) 큰딸의 손을 꼭 잡고 방문하게 된 000 치과에서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받아야 했던 치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전체적인 검진도 진행하였다. 사실 주기적으로 잇몸의 통증이 있었지만 혹시나 치료 비용이 크게 들어갈 문제일까 봐 걱정이 되어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고 나만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나의 말에 주치의 선생님은 세심하게 구강 상태를 확인해 주었고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었다. 미뤄왔던 불소도포와 치석제거도 진행하니 잇몸염증으로 인한 원인 모를 통증도 사라지게 되었다. 나는 안내문(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 사업)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누구에게는 종이 쪼가리일 수 있는 이 안내문이

상명	수상자 (서비스)	수기 주요내용(일부 발췌내용 포함)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이었고 안도감과 여유를 주었다. 나 또한 이 안내문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발산하고 싶다.
	이재성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치과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	[제목]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한 한마디 [요약]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유용성을 잘 전달하며, 검진이 삶에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를 상세히 설명함. 나아가 검진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건강·치과 진료를 실천하며 건강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기술함. (일부발췌내용) "장애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단순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검진은 '끝내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변화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 단지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나를 움직이게 했고, 그 움직임이 나의 몸을 바꾸었고, 결국 나의 삶을 바꾸고 있다. 예전의 나는 불편함을 견디는 데 익숙한 사람이 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 있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한 그 한마디였다.
우수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김옥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목] 방문진료에 대하여 감사 [요약] 거동이 불편한 고령장애인 입장에서 단순한 의료적 처치를 넘어, 방문진료가 가져다 준 사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변화를 세밀하게 기술함. (일부발췌내용) 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의 지역은 경북 포항이며 현재 '000의원'에서 방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할머니랍니다.. 심하지 않은 감기몸살 같은 경우에는 병원 진료 받으러 가는 것이 힘들어서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견디었는데, 방문 진료 오시기 전에 증상을 미리 설명드려서 그냥 주사, 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양일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목] 바퀴가 제대로 굴러야 삶도 굴러갑니다. [요약]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통해 무너졌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나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함 (일부발췌내용) 한 번의 건강 위기가 힘겹게 세운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후 달라진 것은 건강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지난 이야기를 기억하는 의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그것은 단순한 진료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함께

상명	수상자 (서비스)	수기 주요내용(일부 발췌내용 포함)
		읽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번 달의 나와 지난달의 내가 이어진 한 사람으로 다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겪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와의 연계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검진 결과를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읽으면서, 나이와 장애로 자연스럽게 변한 것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처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숫자로만 남았을 결과들이, 내 생활과 연결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관리되기 시작하자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시범사업을 넘어 독거 노령 중증장애인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기를 — 이 수기를 그 바람과 함께 올립니다. 바뀌가 다시 굴러가던 날, 저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굴러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조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목] 고단한 삶에 봄꽃과 함께 찾아온 희망의 파트너 (사지마비 장애인도 치료받을 권리를 누리자!) [요약] 장애 이후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계기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알게 된 순간부터 현재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담아냄 (일부발췌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주장애 부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방문 진료라는 시스템과 결합을 하면, 이동과 외출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 지체 장애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양질의 진료를 받음으로써 최상의 건강 상태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제도까지 이러한 훌륭한 서비스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한 홍보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단순한 의사를 넘어,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든든한 희망의 파트너입니다.
	김예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목] 우리 가족의 삶을 일으켜 세운 따뜻한 처방전, '장애인 건강주치' [요약] 장애 이후 갇혀 있던 일상을 깨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가치있게 담아냄. 더불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만나 신체 건강을 회복하고, 자조모임에 참여하며 긍정적으로 변화한 삶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함 (일부발췌내용) 사람을 보면 떨리던 제가, 이제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저 혼자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저희 가족의 손을 굳게 잡아주신 지역장애인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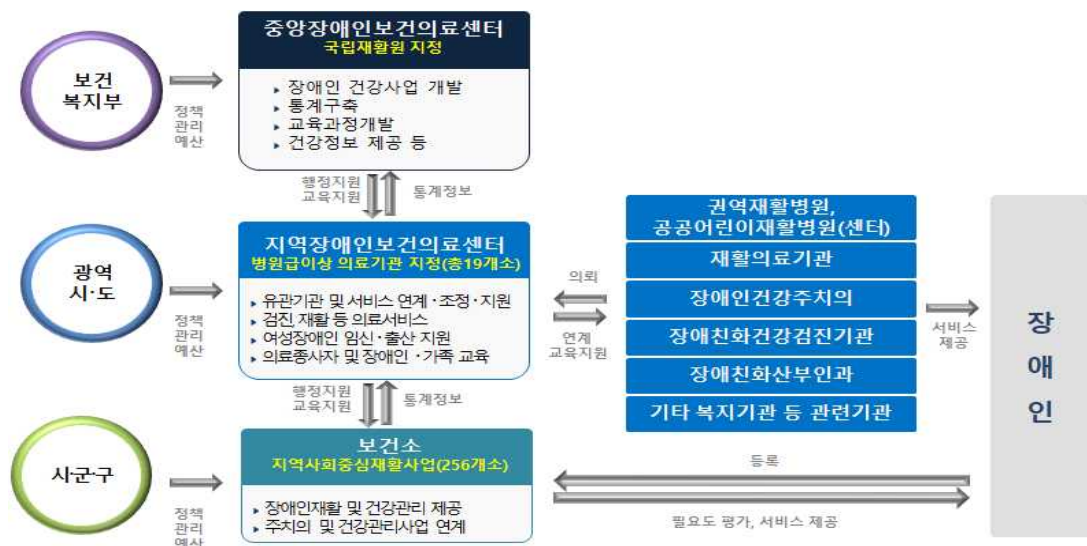
상명	수상자 (서비스)	수기 주요내용(일부 발췌내용 포함)
		의료센터를 시작으로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주신 장애인건강 주치의와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기관 담당자분들 덕분입니다. 단순한 병원 치료를 넘어, 한 가족의 삶과 생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장애인건강주치의가 더 많은 장애인 장애인들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를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려상 (국립재활원 원장상)	오세웅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목] “혼자서는 어려웠던 구강관리, 함께라서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가 바꾼 나의 일상- [요약] 신체적 제약으로 구강관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만나 구강 건강을 되찾은 경험과 이를 통해 '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 긍정적인 변화를 기술함 (일부발췌내용)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는 '치료'에 그치지 않고, 나의 생활 속에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라는 변화를 만들어 주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단순히 치아 상태의 개선만이 아니다. 나의 인식과 생활 태도가 함께 변화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차피 혼자서는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컸다면, 지금은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정기적으로 구강 상태를 점검받고 관리 받는 과정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나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해 주었다.
	이복남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목] 목숨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 아내를 돌볼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요약] 부부 모두 장애를 겪게 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방문진료를 통해 '내일'이라는 희망을 꿈꾸게 된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구체적인 건강관리 현황을 기술함 (일부발췌내용) 부부 모두 장애인인 우리 가정이 방문 진료 덕분에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날이 좋을 때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함께 바깥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나가는 것입니다. 방문 진료 덕분에 이런 내일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사정과 건강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치의가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정보가 없어 집에서 고통받는 장애인들이 이 혜택을 꼭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와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도원 (장애인 건강검진)	[제목]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 나의 언어로 만난 건강검진 [요약] 청각장애로 인해 병원 방문이 늘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과거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수어 통역 덕분에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현재를 대비하여 상세하게 기술함. 더불어 의사소통 지원이 장애인 건강관리에 미치는

상명	수상자 (서비스)	수기 주요내용(일부 발췌내용 포함)
		긍정적 효과를 세심하게 담아냄 (일부발췌내용) 병원에 가기 전에는 항상 속으로 숨을 고른다. 게다가 이번에 직장을 옮긴 일로 타지에 오게 되었는데, 이럴 때는 특히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긴장된다. 복장은 병원 직원이었는데 한국수어를 능숙하게 하였다. 나의 언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직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신선하게 반가웠다. 통역센터에서 연계해서 가도 편안하게 진료를 받았겠지만, 병원 직원이 수어통역을 할 수 있고, 그 직원이 검진에 대한 순서를 다 파악하고 있으니 단순히 수어통역만이 아니라 안내까지 허둥대지 않고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해주어서 정말 편했다. 청각장애인이 비교적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처럼, 내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걸린 느낌으로... 그래서 예민하게 감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긴장했던 장소에서 의외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소통이 원활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노예린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	[제목]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게 한 문자 한 통, 그 세심한 온기가 일깨운 나의 건강권 [내용] 막연한 두려움을 주던 산부인과 진료와 낯선 병원 환경이 '장애친화' 인프라 및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를 만나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술함. 또한 병원에 가졌던 거부감과 고정관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기술함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평범한 병원 방문은 이처럼 커다란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 속에서, 저의 건강권은 어느덧 뒷순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 "000병원의 문자, '낯선 곳'을 '기다려지는 곳'으로 만든다." 예약 단계부터 제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예약을 잡자마자 도착한 상세한 안내 문자는 단순한 예약확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문자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방법부터, 진입로의 차선별 상세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동행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량 하차 후 진료실까지 동행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문장 한 줄은, 시각장애로 인해 낯선 공간에서 위축되었던 제 마음을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 "홀로 마주한 검진, 시스템의 세심함에 안도하다." 의료진분들은 제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해 검진의 매 단계를 차분히 설명하며 진행해주셨습니다. 또한, 진료 후에는 전담 코디네이터가 직접 방문하여 만족도 설문을 진행하며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설문을 직접 읽어주셨고 저 역시 솔직하게 답하였습니다. "나의 의견이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권리 의식은 건강검진 이상의 큰 수확이었습니다.

붙임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기반의 지역사회 연계 통합지원으로 조기사회복귀 지원
- (내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중심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와 지역 내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맞춤형 장애인 건강통합서비스 제공



- (중양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에 설치되어 지역전달체계 총괄·지원, 건강보건통계·연구·정보 제공 등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 주치의, 보건소 등 건강관리사업 조정·지원, 검진·재활·진료 등 거점병원 역할,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의료 종사자 교육 등(* 전국 17개소)
- (보건소)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수행, 전달체계 내 최일선 기관으로 대상자별 특화된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 전국 257개소)
- (유관기관) 권역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 장애인화건강검진기관, 장애인화산부인과,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